

완주 소재 다산기공,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참가 '큰 호평'

세계 각국 무기 전문가들에게 우수하고 탁월한 신기술의 총기류 선보여

전 세계를 무대로 소총과 권총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인 완주 병동 소재 다산기공(대표 김병군(주))이 2024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방산기업 14개국에서 방산기업 380곳이 참여해 부스가 1,400여 개가 넘는 역대 최대의 국제 규모 행사로 미국 방산 전시회(AUSA)와 유럽 방산 전시회(DSEI)와 비견되는 대단히 큰 행사였다.

전시회 행사는 국군의 날 이후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소계 계통대 비행기 활주로에서 열렸다.

우리 도내에 소재한 방산업체는 유일하게 다산기공만이 참가했다.

다산기공에서는 경기관총을 포함한 소총류 23종과 권총류 23종을 비치한 전시회를 열고 있었는데,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 행사 당일엔 KBS, YTN 등이 부스를 찾아 직접 취재하는 등 취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웠으며, 다음날에는 석종근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다산기공(주) 부스를 찾아 총기류에 대한 세심한 재원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또한, 외국 무기 획득 관련 장성 등이 다산기공(주)의 총기류에 대해 큰 호기심을 가지고 총기의 제원과 성능 등을 세밀하게 찾아보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인상 깊었다.

권총 모델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끈 것은 2022년 미국 SHOT 쇼에서 최우수 디자인상을 받은 모델명 DHP9AS와 DHP9AD 권총이었다. 손안에 꼭 잡히고 가벼우며 특이하게 설계되어 전 세계의 총기 전문가들도 탐내는 모델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모델은 9밀리미터 실탄을 사용하고, 1911 해머 방식으로 무게는 1.1킬로그램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기존 미국 권총보다 훨씬 가볍고 유효사거리도 훨씬 길어서 외국 무기 전문가들이 이주 선호하는 기종의 모델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5.56mm 경기관총도 전시하고 있었는데, 경기관총은 무엇보다 가볍고 디자인이 유려하며 사용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어 실제 전투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특별한 장점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해



외 유력 무기 구매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격용 소총(Sniper) 모델에서는 DSSR-762 저격용 소총으로 유효사거리 800미터이며, 총중량 4.5kg으로 가볍고 정확도 면에서 전 세계의 최고 수준의 저격용 소총과도 비교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다산기공의 총기류 제품군은 전쟁 등 백병전 등으로 진흙탕 속에서 있다가 빠져나와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극한의 환경과 조건에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갖도록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쳤다고 한다. 또한, 총기의 생명인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어 타 회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더 주목된다.

특히, 자랑할 것은 최첨단의 자체 테스트 설비시설을 구축하여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높은 신뢰성을 보증하는 등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외국 타 총기회사보다 월등하게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다산기공(주)는 1992년 전북 완주에서 김병학 전 대표가 창업한 토종 국산 총기회사로 축적된 기술력으로 글로벌 총기회사로 나아가 성장 발전하고 있다.

정밀가공 분야의 앞선 기술력으로 인하여 2016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으며, 해가 갈수록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2022년 5천만 불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3개의 공장과 미국에 1개의 생산시설을 두

고 총기류 완제품과 총기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총기류를 수출하여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총기류 외에도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여 현대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산기공(주)은 특히 연간 1,200톤의 생산이 가능한 정밀 주조공장과 300여 개의 최첨단 정밀 가공시설을 보유한 일괄 공정 생산설비를 갖추었다. 이러한 기계 설비를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을 가진 총기류 완제품과 총기 부품류 및 각종 Tool 등 전문 기계 부품 소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총기의 총열 부분 가공 방식을 기존 버트식 기술이 아닌 국내 유일의 신공법인 냉간 해머 포징 공법을 도입해 총기의 우수성과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냉간 해머 포징 공법은 설비에 총열 소재를 넣고 총열 중앙에 멘드릴을 넣은 후 외부 표면을 해머로 1초에 약 2천 회 단속해서 성형하는 신기술이다.

이러한 섬세한 과정을 거쳐 만든 냉간 해머 포징 공법은 2만 발의 사격 후에도 성능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 어느 총기회사와도 차별화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총기부품 표면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크롬 도금 라인과 인산염 피막 라인을 자체 개발 운영하고 있어 외국 타 회사와 구별된 특별한 총기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다산기공(주)은 앞선 기술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전 세계를 압도하는 새로운 총기류를 생산하고 있는 총기 전문으로 특화된 회사이다.

또한, 무엇보다 인재 재질을 추구하는 대표의 의지에 따라 선발된 수준 높은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적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성과가 주목된다. 그리고, 다산기공(주)은 무엇보다 기술혁신에 치중한 도전 정신으로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끊임 없이 연구 노력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 그 귀추가 특히 주목된다.

특히, 한국군에 세계 최고의 총기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자 하는 다산기공(주)의 노력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기를 크게 기대해 본다. /이만호 기자



옥타힐딩스, 국제방산전시회서 드론 기술 선보여

전주대학교 교원창업기업인 옥타힐딩스(주)(대표이사 김동현)가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 참가해 드론 및 항공 기술을 선보였다.

2024 KADEX는 365개의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의 방위산업전시회로, 해외 26개국 44개 대표단이 참가했다.

4일 전주대에 따르면 옥타힐딩스의 첨단 특수 임무 드론은 크게 두 가지로 육·해·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Samkong'과, 초소형 정찰 드론 'Mirinkong'이다. 'Samkong'은 지상과 공중에서 시속 60km, 수심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드론으로 5kg의 임무 장비를 탑재해 다양한 군사작전이 가능하다.

이어 무게 100g 미만의 'Mirinkong'은 15~30km 내외의 거리에서 영상 전송과 조종이 가능하며, 시속 100km로 비행할 수 있어 건물 내부에서도 정찰 및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200g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적에게 식별되기 어려운 정찰 및 공격 드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동현 대표이사(소방안전공학과 교수)는 "지난 6월과 9월 폴란드의 항공모빌리티 방위산업 기업 두곳과 협약 및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며 "2025년 상반기 전폭특별자치도에 한국과 폴란드 최초의 항공모빌리티 방위산업 합작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정읍 신태인농협, 농업발전 위한 조직장 대회 개최

정읍 신태인농협(조합장 황희중)이 최근 총남 태안 안면도에서 지역농발발전 및 농협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장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태인농협 대의원 및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회 교류 및 농협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신태인농협은 이날, 조합원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농협사업에 대한 공감 및 조직장 역할을 도모하여 농업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는 후문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경찰서, 고령자 농기계 사고예방 안전활동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박춘근)에서는 가을 농번기 농기계와 전동휠체어등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교통경찰 및 파출소 전 직원이 사고예방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무주경찰은 농촌지역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밝은옷 입기, 야간 운전자제등 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농기계와 전동휠체어에 시인성 확보위해 반사지 부착 하고 일몰시간 전후 순찰차 예방 순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진봉면 주민자치회-파주시 운정2동, 자매결연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점열) 위원 20여 명과 파주시 운정2동 주민자치회(회장 최성수) 위원 10여 명이 지난 2일 진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봉면과 운정2동의 상호 우호 증진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진봉면은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에 파주시 운정2동 주민자치회를 초청하며 체결한 이번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파주 장단공공축제와 김제 지평선축제에 상호 참여하여 경제적 문화적으로 서로의 장점을 배우기로 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지역특산물 교류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돈독한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알림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7회 위풍당당 전국 실버가요제 = 일시: 9일(수) 오후 2시, 장소: 전주완산생활체육공원 공연장,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주요행사: 식전공연, 개회식, 경연, 가수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 문의: 063-231-6699, 010-7304-5665



남원소방서, 드론제전서 소방진로체험부스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2024남원세계드론제전 행사장에서 학생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소방 진로직업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체험 부스는 미래 소방관을 꿈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방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직접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부스에서는 심폐소생술(CPR) 체험,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방화복 착용 체험, 소방관 체력측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소방관들이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와 구조 및 구급 장비의 사용 방법을 배우는 활동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소방관 직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지역 축제 현장에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학대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했다.

이번 현장상담소 운영은 임실N치즈 축제장에서 여성이 주민들을 상대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을 홍보하는 등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관계성 폭력의 경우 자칫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들 범죄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심을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가정폭력과 성범죄 등은 경찰과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고창 '갯벌 특화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큰 호응

고창군 '갯벌 특화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고창갯벌 일원에서 4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8일 첫 시작은 고운 모래를 활용한 '샌드아트 치유 워크숍'이 대표로 나섰다.

고창 바다의 새 이야기 공연과 직접 손으로 느껴보는 나만의 모래 드로잉이 진행됐고, 이후 갯벌로 이동해 모래갯벌을 발로 느껴봤다.

2주차 '바다채소 치유 워크숍'은 싱싱볼 소리와 함께 무거웠던 몸과 마음을 명상을 통해 가볍게 비웠다. 바다채소를 활용한 치유반상을 즐긴 후 해풍을 맞으며 함초커피로 바다가 주는 안온함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웠다.

후학을 배우기 위한 '바다향기 체험'은 바다가 연상되는 향료로 배합하여 만든 다양한 에센셜 오일을 시향하여 향기노트를 작성했다. 나만의 에센셜 오일을 만든 후 아로마 호흡 명상을 통해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인재양성 장학금 기탁 행렬 이어져

정읍시립요양병원 임직원 500만원 · 한국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 100만원 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정읍시립요양병원 임직원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시민장학재단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고재일 병원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사)한국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회장 박정옥)도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정옥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는 탄소중립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영농폐기물 수거로 발생한 수수료 일부를 기탁하고 있으며, 이 활동은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3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도중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8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호지지사 010-8645-93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익산지사 868-9323	고창지사 563-68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무주지사 010-2300-4253
정읍지사 536-3787	정읍지사 010-3682-6157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